

## The Keyword VIII

### '반응' (Reaction) - 세우는 것은 더디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 1. 여정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삶, 인생'이 차이의 기준이 된다. 종교는 삶과 동떨어지고 분리되었고, 신앙은 삶과 일치한다. 신앙이란 '인생이라는 삶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말한다. 삶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말한다. 이 고백이 분명해질 때 신앙과 삶이 일치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이것이 '진리'를 알게 된 상태이고, 그로인한 자유함이 삶 안에서 실재가 된다.

이런 신앙에 대한 대표적인 속성을 그려낸 책이 존 번연(John Bunyan)이 쓴 『천로역정』 (Pilgrim's Progress, 1678)이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신앙고전으로 유명하다. 이 책의 내용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한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 멸망할 도시에서 나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그려낸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이 쉽다.

가는 길에 단순(Simple), 나태(Sloth), 거만(Presumption), 허례(Formalist), 위선(Hypocrisy), 허영(Vain-glory), 겁쟁(Timorous), 불신(Mistrust), 불만(Discontent), 수치(Shame), 교만(Pride), 오만(Arrogancy), 허영(Self-conceit), 세상영광(Worldly-glory), 수다쟁이(Talkative), 달변가(Say-well), 헛됨(Vanity), 질투(Envy), 미신(Superstition), 아첨쟁이(Pickthank), 선혐오(Hate-good), 쾌락(Carnal-Delight), 사치(Luxuriou), 방탕(Live-loose), 무모(Heady), 거만(High-mind), 증오(Enmity), 거짓말쟁이(Liar) 등을 만난다. 쉽지 않은 순례의 여정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실재를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나침반이 바로 '성경'으로 묘사된다.

#### 2. 반응

결국 신앙은 무엇인가? '반응'의 문제이다. 많은 사람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안다. 믿음이 중요한 줄 안다. 결국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신앙의 실재가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라'이다. 하나님은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는 향해 아이가 있을 것이라 언약하신다. 이에 대한 사라의 반응은 어떠한가?

[창세기 18:11-15]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12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13 그 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14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5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라의 반응은 '웃음'으로 나타난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라의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그때서야 사라는 정신을 차린다. 결국 사라의 웃음은 사라의 불신앙을 보여준다. 내 믿음의 어떠한은 아주 간단하다. 내 삶속에 나타나는 '반응'을 말한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이다. 가라 하면 순종하여 갔다. 제사를 드리라 하면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다. 순종이 무엇인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반응했다. 모세는 언약한 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애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 3. 매일의 반응이 길이 된다.

[이사야 43:19]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성경에 보니 주님께서 만드시는 길이 있다. 새 길이다. 이것은 육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다. 신앙은 인생 안에서 주님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각, 감정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세상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곳이다. 이 곳에서 만들어지는 길이 '데레크'이다. 어원적으로 데레크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

#### 1) 여행의 길

여행을 누구와 함께 가는가?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길은 욕망으로부터 오는 경쟁의 거친 길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친밀함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 2) 삶의 방식의 길 (선과 악) -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열왕기상 2:3]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잠언 22:6]

“마땅히 행할 길(데레크)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 3) 관습, 풍습, 지배의 뜻

가던 길을 반복해서 가다 보면, 습관이 되고 풍습이 된다. 길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복된 습관이 결국 길이 된다. 반복하여 만들어진 이 길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나타나는 권위와 다스림을 표현한다.

오늘 나의 반응은 내 인생의 '길'이 된다. 모든 복의 근원되신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을 만들 것인가? 멸망으로 가는 육의 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 4. 잘못된 길이 만들어지면 결국 무너진다.

앞으로 조이풀 교회가 만들어야 할 길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믿음의 반응들이 몸에 본능 수준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12]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성령을 구해야 한다. 세우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그러므로 매일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한다. 소망의 반응을 해야 한다. 말과 생각, 감정, 행동, 모든 영역에 믿음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제 10년 후를 바라보라. 그리고 새 길을 만들라. 승리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만들라. 이제 반응하자. 이 반응의 반복이 결국 내 믿음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 미래를 결정함을 명심하자.